

독도소식지 17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를 예정대로 내지 못하고 17호는 일찍 나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5개월 늦게 내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이 협조가 있으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군, 독도 인근서 전투탄 실사격훈련

경향신문 황경상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입력:2014-06-20 22:06:52 | 수정:2014-06-21 02:52:08

‘이지스함’ 율곡이이함도 참가
정부, 일본 항의에도 훈련 강행

해군이 20일 동해 독도 부근에서 북한 수상함·잠수함 침투를 가상한 전투탄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 울진 죽변항 동쪽 50km 해상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7600t급),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비롯해 수상함 19척, 해상초계기(P-3CK) 2대, 링스헬기 1대 등이 참가했다. 폐어선 등 가상표적을 향해 초계함인 원주함(1200t급)이 경어뢰 ‘청상어’, 유도탄고속함인 박동진함이 함대함유도탄 ‘해성’, 해상초계기가 공대함유도탄인 ‘하푼’을 발사해 명중시



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정례회견에서도 “한국이 다케시마(독도) 앞바다의 일본 영해를 포함하는 해역에서 사격훈련을 했다”며 항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취소 요구를 일축하고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가로 148km, 세로 55km에 이르는 직사각형 모양의 훈련구역을 항행경보구역으로 선포했다. 오른쪽 끝 모서리 부분이 독도 영해선(12해리) 안쪽인 20.1km(10.9해리)까지 닿아 있다. 해군에 따르면 해당 해역에서의 실사격훈련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당시에 일본의 항의가 있었다. 해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발언에 대한 응징 의지를 밝히고자 훈련을 공개했다”면서 “예정된 훈련이며 독도 부근 영해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원금 주신 분

박상철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15,000원
황옥자	부산시동래구안락1동	50,000원
강병구	부산시 진구 가야동	10,000원
김수기	부산시 수영구 망미2동	5,000원
김진호	서울시종로구부암동	10,000원
안승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5,000원
서윤숙	부산시기장군철마면	5,000원
김경윤	부산시금정구서2동이모네	10,000원

[국민일보 사설] 일본의 독도훈련 간섭은 도발이다

입력 2014-06-21 02:59

독도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도(度)를 넘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우리 군의 독도 남서쪽 해상 사격훈련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없는 간섭이다. 우리 해군은 20일 경북 울진 죽변항 동쪽 50km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 방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통상적인 훈련이다. 정부가 항공기와 선박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구역을 선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19일 주한 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에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훈련 당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영유권에 대한 일본 입장에 비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방어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독도 남서쪽 공해상 훈련을 문제 삼으며 중단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된다.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

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었음에도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은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참모총장 지휘로 훈련을 실시한 것은 당연히 잘한 일이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검증을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자신의 과거 정부가 채택했던 담화를 부정하기 위해 군이 검증을 한 것은 그 자체가 도발이다. 더구나 기를 쓰고 ‘한국과의 협상 결과’라는 식으로 포장하려는 태도는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 인권 차원에서 규탄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초 일본이나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일본의 영토 및 과거사 도발에 한·중 두 나라가 강력히 공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독도를 걱정하며 많은 생각을 한 분의 편지

이상훈 회장님께; 오래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늘 독도를 위해 애써주시는 회장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4천5백만 국민 모두가 생계를 걱정하며 정신없이 바쁘니..... 독도를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독도에는 관심이 없고 독도는 국가가 해결 해야지 하고, (자신은 즐기기 위하여 오락, 낚시, 골프, 사교춤 등등을 하며 독도검색 해본 사람은 3%가 안 될 것입니다. 말로는 관심이 있다함)

위정자는 다른 위정자가 해결하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괜히 생각하면 골치만 아프니.....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군인이 막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고, 군인은 경찰이 관할하고 있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일본은 넘지 말아야 될 최후의 다리를 건넌 듯합니다. (외교청서, 방위백서, 교과서수록)

앞으로 10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 우리 국민은 왜놈이라는 철 천지 원수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선량한 일본인이 왜놈 편에서 보면 누군가 싸워 주겠거니 하는 조센징 나부랭이들, 왜놈들이(일본극우파) 볼 때는 이제

는 다시 지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놈들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어찌 보면 먹혀들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케시마, 공동수역 등) 그러니 일본의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은 귀를 막고 넘치시 싸움구경이나 하고 있지요. 반면에 우리는 지금 누군가 싸움터에 나와서 싸우자고 외쳐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외쳐 돼는 에너지인 원동력이 너무 부족한 듯합니다. 모두들 자기의 이익에 조그마한 근시안적인 생활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라가 안 되면 개인이 잘 살 수 없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고 내가 잘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네요..(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저도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연히 일어서고.. 힘에는 힘.. 눈에는 눈으로 응수해야 하는데... 자금, 인력, 머리, 전략... 등 모든 것이 구한말의 여건과 흡사합니다... 답답하고... 마음이 그저 울분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아직 미약하여.. 잘 모르겠으나.. 조만간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그럼, 건강하시고... 다시 뵙는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14-04-13 (일) x x x 드림

xxx님의 글에 대한 견해?

xxx님이 저에게 보내신 글이 저에게는 너무나 공감입니다. 독도를 지키자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나서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우리국민 만명 중 한명이나 될까? 자기가 독도지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독도를 어떻게 해야 지켜지나? 물어보니 힘을 모아 지켜야 한단다. 힘을 모아 지키자고 한다고 지켜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야 한다. 지금 이글을 보시는 귀하께서는 독도에 관심이 있었으면 인터넷에서 독도를 검색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네티즌 중에 독도를 검색 해 보신분이 몇%나 될까요? 귀하의 친구들에게 독도를 검색해 보았는가를 물어보시고 검색을 했다면 검색해서 알아 본 것을 말해보라 하세요. 검색했다는 사람도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독도 이상훈

독도사수연합회 활동을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다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2014년 독도 이사부 컨퍼런스 발표 교수님들



이사부학회 손승철회장님과 독도단체 대표자들



독도수호팀중 독도사수연합회 이상훈 회장 발표



독도시민단체 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 한 컷



독도수호팀중 독도해병지킴이 박영춘본부장발표



독도 이사부 컨퍼런스 시간 날 때 잠시 한컷



강원도 삼척 심심산골 박노분 고문 자택에서



독도해병지킴이 강연회를 마치고 기념사진



독도사수연합회 장현섭 고문님의 자연과 함께

독도소식지는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대 카페에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크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장현섭 고문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우리 땅인 독도를 왜놈들이 탐을 내며 뺏으려고 하기에 일본식민지 시대에 14살인 제가 왜놈들에게 당한 기억이 생생하여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독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독도사수연합회가 독도연구를 많이 하고 독도에 사람이 살아야 하며 사람이 살 수 있게 독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 생각과 같아서 본회에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입을 하니 나이 많

다고 고문으로 추대를 한답니다. 회장님이 고문은 회장이 잘 못 하는 것이 있으면 야단치는 직책이라기에 앞으로 회장님이 하는 것을 주시해서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신라장군 이사부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해서 독도단체장들을 만나 볼 때 상당히 믿음직 하지만 그래도 왜놈들 하는 것을 보면 우리주인들(국민) 독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야 합니다. 대마도는 약600년 전에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허술히 하는 틈을 타 일본이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독도는 지키고 대마도는 차자야 할 땅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묵숨 걸고 지키자는 독도사수연합회를 국민 여러분이 호응 해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참고 왜놈은 일본 극우파를 말함)

독도사수연합회 고문 장현섭 올림

"日 자위대 창설 기념식 취소"...시민단체들 규탄(종합)

"외교부 장관·김기춘 실장, 기념식 허용 해명해야" 성북동 일본대사관저 앞...
경력 250명 투입돼 충돌 대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07.11 11:44:59 송고



진보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예정된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7.11/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일본대사관이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11일에 열기로 한데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당초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

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념식을 롯데호텔 측이 취소하자 주한일본대사관측은 장소를 성북동 일본대사관저로 바꿨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희망시민연대 등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 집단자위권 반대 저지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쯤 일본대사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기념식 허용과 관련해 해명하고 500여명의 초청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일본 동경이나 마찬가지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아베 일본 총리가 주인이 된 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념식 반대·저지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관계, 경제계 인사들이 다 참석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반대와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참석을 꺼렸다"고 주장했다.

(지면관계상 중단, 사이트에서 보세요.)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의 위기와 기회 2편



려해연구소
RYEO HAE INSTITUTE
김영구 교수의 해양법포럼

다른 한편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하나의 「실체적 진실」이지만 일단 이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게 되면 그때 ICJ는 엄격하고 경직된 기술적인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독도가 과연 한국 영토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판결은 말하자면 하나의 「절차적(節次的) 진실」이다. 그런데 재판기관에 의해서 얻어낸 「절차적 진실」이 언제나 「실체적 진실」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것이 국제재판의 실제적 상황이다.

이처럼 명분론(名分論)에서 볼 때나, ICJ나 다른 국제기관이 개입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 주장을 배척하고 한국의 영토주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확인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는 실체적(實際的)인 관점에서 볼 때나, ICJ에 이 문제가 제소된다든지, 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조용한 대응 정책”이라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 정책 속에 들어있는 “독도문제는 국제재판기관에 가서 사법적 판결을 구하는 것 같은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겠다”는 기본적인 판단만은 올바른 것이다.

그러면 “조용한 대응 정책”이라는 한국 정부의 자세는 무엇이 문제인가? 독도 영유권 문제라는 것은 본래 시간이 해결해 줄 요소는 전혀 없다. 한때 일부 국제법에 관한 기초적 소양이 결여된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현실적 점유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 측에게 독도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전파시킨 적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국제법적으로 모순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대

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현재 “국제법적으로 확정적(確定的)인 상태”이며 아무 일이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러한 한국의 확정적인 영유권은 “더욱 공고(鞏固)하게 응고(凝固)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첫째로 이들은 정당한 권원(權原; title)에 근거하여 성립되어 있는 확정적인 영토 주권은 “아무 일없이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응고되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응고(凝固)의 법리는 이러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장 기초적인 국제법적 법리를 간과(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응고의 과정을 거쳐서 국제법상 하나의 권리로 새롭게 성립되는 것은 적법한 권원(權原; title)이 없는 “사실상의 권리”에 관한 이론이며 국제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응고의 이론은 적법한 권원으로 성립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집요하고 강력한 항의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리 오래도록 아무 일이 없이 시간이 지나가도” 어떠한 한국적 권리가 “응고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성립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국은 중시해야만 한다.

둘째로 한국의 영토 주권은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쓸데없이 자꾸만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다음호에 계속 독도사수대 에서 전부 볼수 있음〉

日관방장관 “위안부 문제, 타개책 검토할 생각 없다”

연합뉴스|입력2014.07.23 17:58|수정2014.07.23 18:17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 일본 정부가 별도의해결책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 이외에 뭔가 타개책을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은 고노(河野)담화 검증에 관해 “국회의 요청에 바탕을 두고 고노담화 작성 과정의 사실 관계를 밝히려고 각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행한 객관적인 작업”이라며 “한국 정부의 반응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검증 결과를 냉정하게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래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독도를 뺏으려 한다. 국제재판을 안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독도연구를 많이 해야 이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 독도를 관광지 만들어 세계 각국에 한국의 관광지로 홍보하면 더욱 유리 해진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잘 모셔야 이기며 독도바다가 공동수역이면 재판에 더욱 불리하다. 정부가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안 하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론이 되면 정부는 투표할 때 표를 의식해서 여론에 따라 정책을 바꿀 것이다. 서명을 많이 하면 여론이 된다. 아래 서명용지를 복사해서 서명 받아 보내주세요.

독도사수연합회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 · 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 명	주 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네이버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koinkorea.cafe
보낼곳 607-809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77-16)
독도사수연합회 E-mail :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독도 이상훈

국제공항에 각국어로 독도 자료 전시 하게 하라.

독도를 지키는 운동에 정부나 국영기업체 등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독도를 외국인들에게 우리 땅인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전시물을 10 국어로 만들었다.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독일어.프랑스어.이태리어.스페인어.아랍어.한글이다. 하나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160cm이다. 김해국제공항에 전시를 하려다 거부 당 하여 못 하고 있다. 전시물 내용은 아래 주소로 오면 볼 수 있다. 허락 하면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 국제공항.에 전시 하고 싶다. 가능하면 전시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http://dokdomart.byus.net/index4.htm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회장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051-782-9174 (전화전송 겸용)

연합뉴스 “日, 英美 싱크탱크에 관료 파견해 ‘독도영유권’ 홍보

기사입력 2014-06-28 11:40최종수정 2014-06-28 11:51

SNS활용해 ‘독도는 일본땅’ 메시지 발신하기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이나 영국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에 정부 관계자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내각부에서 ‘영토·주권 대외발신 회의’를 열어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관한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페이스 북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지면 관계상 뉴스중단〉

일본이 만든 독도 박물관

기사등록 일시 [2014-07-29 10:16:49]



【서울=뉴스】지난 주말 일본의 시마네현과 오키섬을 답사한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예전과는 달리 오키섬 내 새로운 모든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표기해 뒀다”고 29일 밝혔다.

서 교수는 “오키섬 내 가장 큰 항구인 사이고항의 ‘독도와 바다를 둘러달라’라는 큰 제목의 입간판 위치도 바뀌어 새롭게 디자인 된 입간판이 항구 주차광장 입구에 크게 들어섰다”고 전했다. 그는 “오키섬 내 향토박물관에는 두개의 방에 독도관련 전시실을 꾸며 뒀는데 하나의 방은 흰색 천으로 벽을 두르고 종이와 사진위에 손 글씨를 써서 전시하는 등 급하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 흔적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 외 사이고항 육교 현관, 오키섬의 또 다른 항구인 쿠미항 에는 대형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의 위치 및 총면적 소개, 다양한 어조류의 종류와 수량이 많다 라는 등 독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져 있었다.

특히 독도에서 20세기 초까지 생존했으나 일제강점기 때 가족과 기름을 얻으려고 마구잡이 하여 멸종시켰던 강치를 캐릭터화 해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서 교수는 “그냥 일본의 작은 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취급하기에는 이미 일이 커져 버린 듯하다. 더 이상 일본 내에서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이제 강력한 대처가 필요 할 때다”고

日재판부 “한일 협상에서 불리 우려… 독도관련 등 문건 48건 공개 안 해도돼”

기사입력 2014.07.26 00:16:25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관련한 일본 측 문서공개 소송에서 일본 항소심 재판부가 공개 대상 문서의 범위를 대폭 줄였다. 도쿄 고법 민사 제8부는 25일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독도 관련 한·일 교섭, 한·일 청구권 협상,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등과 관련한 48건의 문서에 대해 1심 재판부의 공개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상 관련 문서의 경우 공개되면 북한과의 청구권 협상에서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독도 관련 문서도 한·일 협상에서 일본에 불리할 수 있다는 등의 일본 외무성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번 소송에서 공개되는 문서의 범위는 2012년 10월에 나온 1심 판결보다 줄어들게 됐다. 그에 따라 양국 간에 남아 있는 강제징용 및 군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의 전모를 밝히려는 한·일 시민들의 노력은 또 한 차례 벽을 만났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일본 내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3차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서를 공개했지만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은 여태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강조했다. 사진은 일본 오키섬 내 향토박물관 중 독도 전시실 모습. 2014.07.29.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phot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소	(자택)	우편번호 :	
	(직장)	우편번호 :	
직업(명)	소속단체 :		
E-mail			
참고로 기록 합니다.			
년납 ()	월납 ()	회비	자동이체 ()
자원봉사 =년 회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납부	수시납 : 현금 ()

"우리 땅 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독도사수연합회장 귀하

참고사항: 회비는 월1,000원 이상으로 자동 이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원은1만원 이상)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

우편번호: 607-809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전화: 051-782-9174. 독도 이상훈 손전화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E-mail : ds5ean@naver.com lsh54a@hanmail.net 보내세요.

독도소식지 17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까지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후원 하실 분 ▶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데일리한국] 독도 동영상 홍보전 日에 완패 유튜브 조회수 日이 5.7배 더 많아

김종민 기자 jmkim@hankooki.com

수정시간 : 2014.09.04 18:46:00

한일 독도 동영상 홍보전에서 우리 측이 일본에 완패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이날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제작한 독도 홍보영상 유튜브 조회 수가 우리보다 일본이 5.7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영어로 제작한 독도 홍보 동영상 유튜브 조회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만6,619회인 데 비해, 일본 동영상은 20만9,018회로 집계됐다. 더욱이 한일 양국이 자국어와 상대국어로 제작해 게시한 홍보영상 조회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독도 홍보영상은 유튜브 외에 정부 유관기관, 민간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볼 수 있다”며 “유튜브에 집계된 조회 수만으로 이를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를 놓고 세계인을 대상으로 영문판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유튜브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사이버 홍보전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